

# ‘배아줄기세포’ 불교계 입장은?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비윤리성을 비판만 해오던 기독교계가 ‘비판’을 넘어 성체줄기세포연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 줄기세포 윤리성 논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기독교계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까지 불사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뒤늦게나마 조계종이 11월 26일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중으로 중단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교리상 문제없다” 견해 많아

가톨릭계는 10월 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를 발족시키고, ‘생명의 신비기금’ 100억원을 확보해 성체줄기세포연구를 지원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 총상금 3억원 규모의 ‘생명의 신비상’을 제정해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큰 역할을 낸 이를 포상하기로 했다. 마련된 기금은 가톨릭병원에 중점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성당 짓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강한 결의를 보였다. 가톨릭계의 상징적인 존재 김수환 추기경도 9일자 가톨릭신문에서 인간배아를 명백한 인간생명으로 규정하며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11월 26일 심포지엄, 내년중 입장 표명할 듯

### 기독교, 반대입장 공식화...성체줄기세포 대안

개신교 61개 교단과 20단체가 가입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최성규·이하 한기총)는 7일 세미나를 열어 배아줄기세포 대신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입장을 13일 개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식입장으로 채택했다.

기독교계의 신속한 대응과 달리 불교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조계종이 제1회 불자대상 수상자로 황우석 교수를 선정할 바 있고, 지난 달 입적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생전에 황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격려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불교학자들 사이에서는 “불교교리에 따르면 배아는 생명이 아니며,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불교교리상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지 530호 13면 참조)

### 교계, 사회현안에 소극적

이와 관련한 불교계의 공식입장은 내년 중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지난해 발족

한 ‘불교생명윤리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심포지엄을 11월 26일 열어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표케 하고, 이를 토대로 공식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 정리가 간단한 일이 아니며, 배아줄기세포를 다루는 ‘생명조작분야’ 위원들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생명조작분야’의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허남결 동국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낙태분야’의 고영섭 동국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유효종 연세대 교수 등 5개 주제분야에서 총 15명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11월 12일에는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종표)가 ‘불교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계는 이제 겨우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불교적 관점 정리를 위한 결음을 단계를 밟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불교계의 반응이 느린 까닭은 무엇일까. 영명대 동국대 교수(불교학과)는 한국불교가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잃고, 지혜에만 편중하는 경향에서 원인을 찾는다. 윤 교수는 “한국불교는 여

전히 자기 해탈에 주력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 내면에 침잠해 있다보니 사회현안에 대한 인식도 더디고 반응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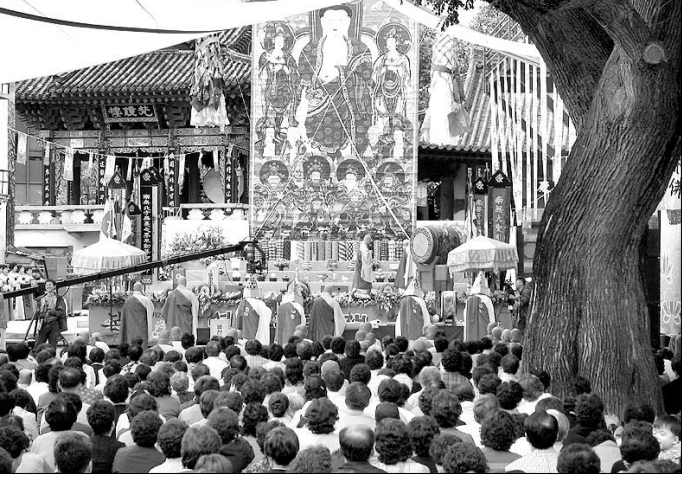
### “충분히 논의하자”

서재영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타종교의 신속한 반응에 초조해하기보다는 더디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씨는 “종교가 사회현안에 대한 도덕적·종교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가능해도, 과학연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본분을 벗어난 것”이라며 가톨릭계의 성체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비판한 뒤, “불교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 그룹을 조직해서 그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공식 입장을 밝히는 신중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 성체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는 인간 체계의 골수나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배아를 이용해 배양하는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생명윤리 논란이 적다. 하지만 성체줄기세포는 치료에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렵고, 타인의 세포를 쓸 경우 면역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박익순 기자 uf@buddhapia.com



**조계종 제3회 영산재 봉행** 전통불전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계종의 제3회 삶과 죽음의 아름다운 만남 영산재가 3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10월 9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보성 스님은 “영산재는 수많은 인천중(人天衆)이 영축산에 모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듣는 장엄한 모습을 극적으로 재현한 불교문화의 정수로 환희심 넘치는 불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계종은 중단차원의 불전의식 재정립 차원에서 2003년부터 3년 동안 총30시간에 걸쳐 영산재 전 과정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은수 기자

## 북관대첩비 100년만에 돌아온다

### 한·일 공식 서명...28일 한국서 공개

북관대첩비가 100년 만에 돌아온다. 한일 양국정부는 10월 12일 야스쿠니 신사 회관에서 북관대첩비 반환 인도문서에 공식 서명하고 본격적인 반환 절차에 들어갔다. 북관대첩비 반환을 주도하고 있는 한일불교복지협회 회장 초산 스님은 “지난 3일 야스쿠니 신사 이사회에서 북관대첩비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며 “10월 20일 경 국내로 북관대첩비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청장 유희준)도 ‘북관대첩비 환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에서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 행사에서 북관대첩비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 친일파 이해창 후손 내원암 상대

## 땅찾기 소송 취하 반복

친일파 이해창 후손들이 내원암을 상대로 제기했던 ‘땅찾기’ 소송의 취하를 반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모씨 등 이해창 후손들은 10월 11일 소 취하를 취소하고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557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내원암 일대 5만여 평을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해창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 측의 변론을 맡고 있는 송기성 변호사는 “내원암 측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봉선사에 찾아와 사과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판사 강민구) 관계자는 “재판을 제기했던 원고가 소송 취하를 취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의 심리를 거쳐 1심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 ‘여성의 경제생활’ 연구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보주)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10월 21일~22일 김천 직지사서 <여불련 10년사> 출판 기념행사와 함께 ‘여성의 경제생활 활성화 방안’ 연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민주적인 제도와 불자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강지연 기자

## 10·27법난 특별법 제정 국회 귀빈식당서 공청회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이하 법난진상규명위)는 법난 발생 25주년을 맞아 10월 27일 오후 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10·27법난 25주년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가 ‘법난 발생의 정치사회적 배경 및 당시 책임자의 동향과 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동국대 연영 교수가 ‘명예회복과 피해자보상의 법적 근거의 당위성, 다른 유사사건의 특별법과 비교분석’을 각각 발표한다.

또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법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채환규 PD가 취재 과정에서 발굴한 법난 정황에 대해 설명하며, 법난 당시 평장 상원사 주지였던 삼보 스님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 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

###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은 불교문화컨텐츠를 발굴하고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11월 25일까지 ‘제2회 불교플래시애니메이션 공모전’을 연다. 주제는 ‘한국사찰의 설화’.

애니메이션 작품은 3~5분 사이로 제작, Fla와 Swf 파일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응모할 때 작품소개와 시나리오, 기획의도, 스토리보드를 첨부한 기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통사찰 관광종합정보사이트(www.koreatemple.net)로 인터넷 접수하거나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결과는 12월 2일 전통사찰관광안내 종합정보 사이트에 게재 된다. (02)2011-1857 이민비 기자

### 종교 뛰어넘어 나눔바자

강북구 수유동의 3개 종교단체가 힘을 모았다. 화계사(주지 성광)와 송암교회, 수유1동 성당은 10월 8일 한신대학교 운동장에서 ‘제6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강북구 내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쳤다.

이날 바자회에는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 송암교회 박승화 목사, 수유1동교회 박문석 신부, 김현경 강북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모금된 5000여만원의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은 11월 초순경, 지역 난치병 어린이 2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 불교계 파키스탄 구호 나선다

### 현장에 조사단 파견...봉사단 보내기로

지난 10월 8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조계종과 한국한국 JTS가 본격적인 구호활동에 나섰다. 조계종은 10월13일 주한파키스탄 대사관에 파키스탄 국민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다는 내용의 애도문을 전달했으며, 파키스탄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10월 14일 현지에 선발대를 파견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10월 21~29일 15명 내외의 의료봉사 인력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봉사단도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JTS(대표 유수)는 10월 10일 주한파키스탄 대사관에 긴급구호지원금 5000달러를 전달했으며, 10월 11일에는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이 현지를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 JTS는 답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지원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유철주·김강진 기자

## 승가교육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기초 2년·기본 4년·전문 교육 5년

‘기초(행차)교육 2년, 기본교육 4년, 전문교육 5년’을 주요골자로 지난 제5차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중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조계종의 승가교육제도개선안 입법예고 했다. 승개추 법령개정분과위원회(위원장 영배)는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조계종포와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관련 개선안을 교육원 명의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승가교육제도 개선안에 따라 조

계종은 기초교육이 2년으로 늘어나지만 기본교육 기간은 현행대로 4년을 유지하고, 전문(특수)교육 기간은 5년(전문2년, 연구3년)으로 현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선안은 앞으로 교육원회의-총무회의-중앙종회 교육분과 심의-중앙종회 본회의에 상정 등을 거쳐 중앙종회에서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입법 시행된다. 조은수 기자

## 감사의 말씀

삼보에 귀의합니다. 법장 큰스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하여 바랑 하나에 온갖 것들을 담으셨던 이 사바세계와의 세연을 뒤로한 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들의 무능과 잘못으로 스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을 깊이 참회하며, 그동안 스님에게 보여주신 여러 덕행과 추모의 뜻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지면으로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께서 남다른 생각과 실천정신으로 나눔을 통한 복지사회건설과 청정승가구현, 수행풍토의 진작 등 씬 없는 수행과 거침없는 자비행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문도들은 스님의 유지와 보살행을 받들고 가슴에 새겨 열심히 수행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스님의 49재일(2005년 10월 29일)을 맞이하여 평소 스님과 인연 있었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모임 안내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10월 29일 토요일 11:00 (49재 끝난 직후)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인곡당 법장 대중사 문도회(도광, 지만, 정묵, 도신 외) 일동